

KCC, 주택에너지효율화 공급기업 선정



KCC(대표 정몽익)는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단열창호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월25일 발표했다.

KCC는 시민에게 최대 20% 할인된 가격으로 고기능성 창호를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책임진다.

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주택의 에너지 손실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에 저리 용자 등 금융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.

건물 에너지 손실은 창호에서 45%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.

KCC 관계자는 “우수한 성능의 창호제품을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협조하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3/02/25>